

祖母가 孫子女의 personality 에 미치는 영향

朴 美 卿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指導教授 李 相 魯

《目 次》

緒 論	4. 研究方法
1. 目 的	5. 結 果
2. 假 說	6. 考 察
3. 研究對象 및 期間	7. 結 論
參考文獻	

緒 論

Personality 의 形成은 遺傳的 要因과 環境的 要因과의 相互 動的인 交互作用에 依하여 이룩된다⁽¹⁾. 勿論 어느 要因이 더 強하게 作用하는가는 學者들의 見解가 生活 그 自體에 따라 同一하지는 않으나 只今까지의 研究結果를 綜合해 볼 때 personality 의 形成에 그 兩要因이 다 作用하고 있는 것 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렇다면 personality의 要因中 遺傳的 要因은 하나의 宿命的 既定事實로 認定할 때 그 研究對象은 마땅히 環境的 要因의 解明에 集約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生覺된다. 勿論 環境的 要因도 보다 廣範圍하고 複雜하여 그 作用要因을 獨立的으로 分析하여 云云하기는 困難한 問題이다. 一旦 여기에서 家庭的 學校的 社會的인 側面으로 區分하여 生覺해 보면 이中에 어린이의 境遇는 特히 學校나 社會的 環境에서 오는 影響力보다 家庭 그 自體에서 오는 影響力이 큰 것이다. 왜냐하면 家庭은 飲食 飲料와 같은 가장 生理的인 欲求에서 부터 安全 愛情과 같은 가장 精神的인 欲求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欲求를 充足시켜 주는 일에 關係한다. 欲求 充足을 위한 家族에의 依存性은 出生時에 가장 크고

祖母가 孫子女의 personality 에 미치는 영향

그후 漸次로 減少한다. 그러나 兒童의 全欲求를 考慮해 볼 때 우리는 어떤 다른 集團도 家庭에게 匹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²⁾

이렇게 볼 때 要求의 挫折 與否가 personality 에 影響을 준다는 假說이 成立된다면 家庭의 環境의 影響力이 關心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또 家庭에서 오는 影響力은 비단 要求 水準에서만 論議될 것은 아니고 家族構成의 作用力에서 오는 點도 看過할 수는 없을 것이다.

現代社會의 家族의 基本的 形態는 理念的으로는 夫婦와 子女들로 構成되는 核 家族을 標榜하고 있으나 現實的으로는 祖父母와 父母와 그들의 子女로 構成되는 大家族이 많이 있다⁽³⁾. 重世代 家族이 이루어지는 理由는 住宅의 問題와 또 祖父母들의 그들 子女에 對한 依存心에 基因함이 많다⁽⁴⁾.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問題는 어느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몇가지 外部的인 條件에서가 아니고 長子는 그의 父母를 모셔야 된다는 遺風이 거의 完全히 남아 있어서 望世代 家族은 아주 自然스러운 것이다.

大家族은 보다 相異한 많은 사람들로 構成되기 때문에 相互 反應이 아주 複雜하므로 이러한 要素가 兒童의 personality 發達과 行動에 크게 影響을 준다.

家族이 늘어남으로 해서 일어나는 人間關係의 複雜性은 Henry 와 Warson 의 $2^n - n - 1$ 이라는 公式에서 잘 볼 수 있다⁽⁵⁾. 本研究에서는 祖母가 孫子女의 personality 에 어떤 影響을 끼치는가를 보았다. 特히 祖母를 擇한 것은 祖父母中 祖母가 一般的으로 더욱 그 孫子女에 對해서 影響力이 많고, 또 孫子女의 養育에 있어서도 自己의 標準에 맞추어 기르려는 高집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은 兒童 養育方法에 關한 父母의 態度가 顯著하게 變化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養育方法에 對한 差로 因하여 두 世代間에 그들의 葛藤을 일으키는 境遇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差異는 兒童들에게 亦是 葛藤과 障害를 일으키게 한다. 祖母가 함께 生活하게 될때는 大體로 兒童들에 對하여 서로 나누어져 있을 때 보다 祖母는 더욱 溺愛의이 되고 어머니는 더욱 嚴格해지는 傾向을 보이게 된다. (Staples and smith, 1954)⁽⁶⁾.

그리고 또 때로는 祖父母와 父母의 家庭生活 全般에 이르는 對立狀態에 있어서 兒童을 自己 陣營으로 끌어 들이려고 지나치게 憎惡을 받아주는 態度를 取한다든지, 對立狀態에서 생기는 不滿을 쏟을 곳을 兒童에게 求하여 합부로 꾸짖는다든지, 反對로 必要 以上으로 過剩 保護를 하는 境遇도 많다⁽⁷⁾.

時代의 變遷과 文化의 發達は 家政學의 領域에도 많은 變遷을 가져왔다. 營養, 住宅, 被服, 調理 등의 많은 部分은 工業化되고, 企業化되어 감에 따라 家政學의 領域에서 많이 脫逸되고 그 代身 家庭管理 特히 家族 關係, 兒童學, 兒童學이 많이 強調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家族構成 및 그 關係와 幼兒, 兒童들에 미치는 影響은 비단 心理學의 領域으로서 만이 아니고 家政學의 領域中에 크게 浮刻되어야 할 問題라고 生覺되고 이것이

곧 이 研究의 커다란 動機中의 하나이다.

- 註 1. stagner, R.: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1961, p. 361.
 2. Davis, K.: Human Society; 李萬甲, 高永復譯 乙酉文化社 서울 1964. p. 461.
 3. 辻正三: 問題의 祖父母, 兒童心理 第17卷 第七章 金子書房 東京, 85-90.
 4. Koller, M.R.: studies of three-generation households, marriage Family, Living, 1954, 16, p. 203~206.
 5. Hurlock, E.B.: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ow-Hill, 1965, p. 493.
 6. Hurlock, E.B.: child Development, NewYork, Mcgrow-Hill., 1964, p. 485.
 7. 洪麟源: 問題解決의 心理學事典, 臨床心理研究會 1964. P. 107.

1. 目 的

家族構成 乃至 家族關係가 그 子女들의 personality 의 形成에 影響을 미치고 있음은 이미 많은 心理學者들이 指摘하고 있다. 特히 우리나라의 家族關係에 있어서의 祖孫關係는 他國의 그것과 다른 點이 있다고 본다. 外國의 境遇는 住宅問題 老人의 依存心 등 몇가지 原因에 依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境遇는 傳統的 道德的 問題로서 祖父母와의 同居는 當然以上の 것으로 (特히 長子일 境遇) 生覺되며 이에 따라 祖父母의 家庭內의 位置로 外國에 比하여 크게 다른 것이다. 祖父母中 孫子女에게 影響力이 큰 사람은 兒童의 人格形成期를 通하여 오랫동안 접촉하는 祖母라 生覺된다. 따라서 特히 祖母의 有無와 態度가 그 孫子女에게 어떠한 影響을 주는가를 究明해 보려는 것이다.

2. 假 說

위 目的에 따라 研究 推進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하였다.

1. 祖母의 有無가 그 孫子女의 personality 特性에 差異를 나타낼 만큼 그影響力을 준다.
2. 祖母의 孫子女에 對한 態度는 孫子와 孫女에 따라 다르다.
3. 祖母를 가진 孫子女의 不安感은 그들의 personality 特性 水準과 關係가 깊다.

3. 研究對象 및 期間

對象: 市內 9 個 幼稚園에서 滿 5~6 歲 兒童 144 名을 無作爲 標集하여 研究對象으로 選定하였음.

標集된 幼稚園과 그 園兒數는 다음과 같다.

表 1

	동 신	파티마	남 광	계 명	대 남	제 일	대 봉	심 덕	효 성	합 계
동 거 남 아	4	8	4	2	7	3	8	—	—	36
동 거 여 아	4	6	4	6	1	3	4	6	2	36
비 동 거 남 아	2	8	4	4	6	6	6	—	—	36
비 동 거 여 아	4	5	4	5	4	1	1	6	6	36

祖母가 孫子女의 Personality 에 미치는 영향

그 總數는

祖母가 있는 (同居해 온) 男兒 36 名과 女兒 36 名.

祖母가 없는 (同居해 오지 않은) 男兒 36 名과 女兒 36 名, 計 144 名임.

期間: 1965 年 7 月 10 日부터 1965 年 12 月 3 日까지.

4. 研究方法

(1) 用 具

A. personality 特性 調査를 爲한 check list.

觀察用 check list (別添)의 妥當度

各特性間의 相關係數

表 2

	독립성	지배성	협력성	인내성	책임감	성취욕	공격성
지배성	.390	—	—	—	—	—	—
협력성	.439	.168	—	—	—	—	—
인내성	.630	.054	.547	—	—	—	—
책임감	.536	.111	.698	.599	—	—	—
성취욕	.798	.504	.431	.484	.676	—	—
공격성	.339	.607	.286	.317	.172	.605	—
적의	-.268	-.608	-.593	-.479	-.475	-.344	.418

B. 祖母의 孫子女에 對한 態度 調査를 爲한 check list 面接用 別添의 妥當度

各態度間의 相關係數

表 3

	支 持	禁 止
禁 止	-.23	—
溺 愛	-.47	-.37

(2) 方 法

A. 10 個月以上 保育해 온 保母에 依하여 觀察된 바를 check list 에 따라 check rating 케 하고 그 結果를 grade point 를 주어 集計, 處理, 檢證하였음.

B. 3 年以上 孫子女와 同居해 온 祖母와 面接한 것을 check list 에 따라 check rating 하고 그 結果를 grade point 를 주어 集計, 處理, 檢證하였음

5. 結 果

假說 1 의 祖母의 有無(同居해 왔거나 同居해 오지 않은)에 따른 孫子女의 personality 特性은 다음과 같은 差異를 나타내었음.

1) ① 祖母가 있는 (同居해 온) 男兒에게 높은 personality 의 特性

가 정 학 회 지

表 4.

	Md	Md 보다 높은 數		Md 보다 낮은 數		x ²	p.
		同居	非同居	同居	非同居		
공격성	13	19	17	17	19	.003	p>.95
적의	10	21	15	15	21	2.000	p>.10

N=72 df=1

② 祖母가 있는 (同居해 온) 女兒에게 높은 personality 의 特性

表 5.

	Md	Md 보다 높은 數		Md 보다 낮은 數		x ²	p.
		同居	非同居	同居	非同居		
공격성	12	19	17	17	19	.003	p>.95
적의	9.5	24	12	12	24	8.000	p<.005

N=72 df=1

祖母가 있든지 없든지 (同居하든, 하지않든) 공격성에는 有意水準 5%를 規準으로 보았을 때 그 差異를 認定할 수 없다. 그러나 敵意에 있어서도 男兒는 有意水準 10%로 그 差異가 認定되지 않고 女兒는 有意水準 0.5%에 그 差異를 認定할 수 있다. 따라서 祖母가 있는 (同居해온) 女兒는 祖母가 없는 (同居해 오지 않은) 女兒보다 敵意가 높다는 것이 認定된다.

2) ① 祖母가 없는 (同居해오지 않은) 男兒에게 높은 personality 의 特性

表 6.

	Md	Md 보다 높은 數		Md 보다 낮은 數		x ²	p.
		同居	非同居	同居	非同居		
독립성	14.5	15	21	21	15	2.00	p>.10
지배성	11	13	23	23	13	5.56*	p<.02
협력성	14	16	20	20	16	0.89	p>.30
인내성	14	13	23	23	13	5.56*	p<.02
책임감	14	17	19	19	17	0.003	p>.95
성취욕	14	12	24	24	12	8.00*	p<.005

N=72 df=1

② 祖母가 없는 (同居해 오지 않은) 女兒에게 높은 personality 의 特性

表 7.

	Md	Md 보다 높은 數		Md 보다 낮은 數		x ²	p.
		同居	非同居	同居	非同居		
독립성	14	14	22	22	14	3.56	p<.05
지배성	11	15	21	21	15	2.00	p>.10
협력성	14	15	21	21	15	2.00	p>.10
인내성	13.5	14	22	22	14	3.56	p>.05
책임감	15	15	21	21	15	2.00	p>.10
성취욕	13	13	23	23	13	5.56*	p<.02

독립성 협력성 책임감에는 有意水準 5%를 規準으로 보았을 때 祖母가 있든지 없든지 (同居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差異를 認定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배성과 인내성에 있어

祖母가 孫子女의 Personality 에 미치는 영향

서는 男兒는 다같이 有意水準 2%로 그 差異를 認定할 수 있으며 女兒에 있어서는 지배성 10%, 인내성 5%에서 그 差異가 認定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취욕에 있어서는 男兒는 有意水準 0.5% 女兒는 有意水準 2%로 男女 다 같이 그 差異를 認定할 수 있다. 따라서 祖母가 없는 (同居해 오지 않은) 男兒는 祖母가 있는 (同居해 온) 男兒에 比해서 지배성과 인내성 성취욕이 높다는 것이 認定되어 또 祖母가 없는 (同居해 오지 않은) 女兒는 祖母가 있는 (同居해 온) 女兒보다 성취욕이 높다는 것이 認定된다. 따라서 성취욕에 있어서는 祖母가 없는 어린이가 祖母가 있는 어린이에 比해서 높다는 것이 認定된다.

假說 그의 祖母들이 孫子 孫女에 對한 態도의 差異는 다음과 같다. 表 8.

	Md	Md 보다 높은 數		Md 보다 낮은 數		x ²	p.
		孫子	孫女	孫子	孫女		
支 持	12	23	13	13	23	5.56*	p<0.2
禁 止	4	18	18	18	18	0.00	—
溺 愛	6	24	12	12	24	8.00*	p<.005

N=72 df=1

祖母의 支持的 態도와 溺愛의 態도는 各各 2%, 0.5%의 有意水準으로 差異가 있고 禁止의 態도는 差異가 없다. 即 祖母는 孫女보다 孫子를 더욱 支持하고 溺愛하고 있다. 假說 3의 祖母가 있는 (同居해 온) 孫子女의 各 personality 特性和 不安感과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各特性和 不安感과의 相關關係 表 9.

	독립성	지배성	협력성	인내성	책임감	성취욕	공서성	적 의
不 安 感	-.994	-.209	-.716	-.301	-.352	-.837	-.247	-.376

위 結果는 祖母가 있는 孫子 孫女の personality 特性中 독립성, 협력성 성취욕과 不安感과의 關係는 各各 -.994, -.716, -.837의 逆相關을 보여주고 있다.

6. 考 察

父母들의 性格이나 養育態도가 그 子女들의 personality 에 미치는 影響을 살핀 研究는 文獻의으로 그리 드물지 않다. 例컨데 Hattwick, B.W.(1936)⁽¹⁾, Levy, D.M. (1943)⁽²⁾, Cummings. J.D. (1944)⁽³⁾, Hutt, M.L. 과 Gibby, R.G.(1959)⁽⁴⁾ Zunich, M.(1962)⁽⁵⁾ Slater, P.E.(1962)⁽⁶⁾ Chorost, S.B.(1962)⁽⁷⁾ 牛島義友⁽⁸⁾ 辻正三⁽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祖母와의 關係에 對한 文獻은 손쉽게 얻기가 힘들었다. 비록 祖母가 同一한 家庭에서 同居한다 하여도 家族構成이나 家庭의 傳統이 우리나라와 外國의 그것과는 많은 差異가 있기에 祖母가 同居한다는 單純한 한가지 條件으로서 研究結果를 比較하기에는 너무나 問題가 많다. 그러기에 可及적이면 우리나라의 特殊與件이라는 前提下에서

外國의 그것과 크게 關係 지우기를 避했다.

먼저 觀察코저 하는 personality 의 特性은 personality 를 構成하는 全因子를 採擇하여 그 全部로서 불려는 것이 아니고 前述한 8個 特性을 任意로 採擇하였고 6個 特性間의 相互關係數가 .6 以上の 것이 7個, 나머지 21個는 2 以下임으로 check list 의 妥當度を 一旦 認定하였고 祖母의 그 孫子女에 對한 態度는 Baldwin, A.L. 의 兩親行動을 評定尺度에 依한 4類型⁽¹⁰⁾을 參酌하여 支持 溺愛, 禁止의 3個類型으로 分類하였다. 相互相關은 모두 .47 以下임으로 그 妥當度を 認定하였다.

이 研究結果는 첫째 8個 特性中 祖母가 同居함으로써 높아지는 것은 攻撃性和 敵意에 不過하고 그나마 5% 有意水準에서 差異가 認定되는 것은 孫女의 敵意에 限해서이다. 여기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은 同居하는 孫子女中에서의 孫子의 數가 얼마인지를 살피지 못해서 斷定的인 結論을 내릴 수 없으나 大體로 祖母의 孫子에 對한 過剩, 溺愛의 態度가 同居중인 孫子女의 敵意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生覺되며 韓國의 男尊女卑의 思想과 一般的으로 不平等에서 오는 敵意形成의 理論과 一致되고 있다.

나머지 6個 特性은 모두 祖母가 있는 쪽이 낮은 結果를 나타내고 5%의 有意水準으로 보아 差異가 認定되는 것은 그 中 孫子에 있어서 支配性, 忍耐性, 成就欲, 孫女에 있어서 成就欲이다. 獨立性에 有意的인 差異를 發見할 수 없음은 先行研究를 例컨대 Hutt, M.L. 의 研究⁽¹¹⁾ Hattwick, B.W. 와⁽¹²⁾ 一致되지 않는다. 또 忍耐性和 責任感에 있어서도 Boring, A.L.(B) 등의 研究結果와 不一致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같은 結果는 家庭에 있어서의 養育態度만에 依해서 決定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卽 單純한 祖母의 問題이라기 보다 어머니나 其他家族을 包含하는 家族의 人間關係를 비롯한 諸問題의 交叉에서 그 解決策을 發見하여야 하겠다⁽¹³⁾는 點을 暗示하고 있다.

이에 對해서 支配性, 忍耐性, 成就欲에 有意的인 差異를 認定할 수 있음은 洪麟源氏⁽¹⁴⁾의 所論과 一致되며 또 Hattwick, B.W.⁽¹⁵⁾ Levy, D.M.⁽¹⁷⁾, Zunick, M.⁽¹⁸⁾, Slater, P.E.⁽¹⁹⁾ 諸氏들의 研究와 一致된다.

다만 以上の 比較考察은 어머니와의 關係에서 오는 研究結果와의 比較이고 祖母와의 關係에 對한 研究結果와 比較한 것은 아니다. 祖母~孫子女, 母~子女의 關係가 都市일 수록 村落에 比해서 弱해지고 職業을 가진 母의 子女가 그 祖父母에 對한 關係가 強하다고 보고 되어 있고⁽²⁰⁾ 그 外에는 本質的인 差異를 둘 必要를 그리 느끼지 않음 같다.

勿論 이 personality 特性의 差異原因은 좀 더 印象적 考察이나 事例 研究가 있어야 겠으나 一般的으로 祖母가 그 孫子女에 對한 態度가 다른 家族들의 態度보다 過剩溺愛, 過剩 保護의 態度를 가져온다는 結論을 生覺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와같은 特性들이 弱化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이와 더불어 또한 問題가 되는 點은 祖母가 同居하는 孫子女에게 낮은 特性을 보이고 있는 支配性, 成就欲에 不安感이 逆相關의 關係를 보여주고 있는 事實이다.

祖母가 孫子女의 Personality 에 미치는 영향

이와같은 結果는 辻正三氏의 研究結果⁽²¹⁾나 Hattwick, B.W.⁽²²⁾의 研究結果와 一致된다. 이와같은 點은 單純한 personality 의 問題를 넘어선 精神衛生 乃至 精神健康의 問題로서 家族關係나 兒童學의 重要한 한 問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同時에 이 研究結果에서 有意的差異를 發見할 수 없었던 것이나 다른 先行研究들에 發表된 獨立性的의 결핍에도 강한 不安이 따른다는 것은 亦是 祖母의 그 孫子女에 對한 態度나 어머니의 그 子女에 對한 態度와 關聯지워져 注意를 기우려야 할 點이라 보겠다.

- 註 1. Hattwick, B.W. Interrelations between the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and certain factors in the honm. Child Developm., 1936, 7, 200-226.
2. Levy. D.M. Maternal overprotecti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43.
3. Cummings, J.D. The incidence of emotional symptoms in school children. Brit. J. Educ. Psychol., 1944, 14, 151~161.
4. Hutt, M.L., Gibby, R.G. The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Boston: Allyn and Bacon, 1959.
5. Zunich, M.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J. Gen. Psychol. 1962, 100, 155-165.
6. Slater, P.E. Parental behavior and the personality of the Child. J.Gen. Psychol., 1962, 101, 53~68.
7. Chorost, S.B.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ir correlates in adolesent. Gen. Psychol monogr: 1962, 66, 49~90.
8. 牛島義友: 家族關係의 心理 金子書房 1955.
9. 辻正三: 獨子の 心理 親子關係 1955.
と子息の 人格形成 兒童發達 國土社 1957.
10. 阪本外二名: 人間關係의 診斷 牧書店 1961, 239~240.
11. Hutt, M.L. → Ibid.
12. Hattwick, B.W. → Ibid.
13. Boring, E.G, and others Foundations of psycholog.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2.
14. Koller, M.R. studies of three generation households. marriage Fam, Living, 16, 206.
15. 洪麟源: 問題解決의 心理學事典 東亞出版 1964.
16. Hattwick, B.W. → Ibid.
17. Levy, D.M. → Ibid.
18. Zunich, M. → Ibid.
19. Slater, P.E. → Ibid.
20. 辻正三: 問題의 祖父母 兒童心理 金子書房 1964, 17, 7. 85~90.

7. 結 論

獨立性, 支配性, 協力性, 忍耐性, 責任感, 成就欲, 攻擊性, 敵意의 8個 Personality 特性中, 獨立性, 協力性, 責任感, 攻擊性은 大體로 祖母의 有無(同居해 왔느냐의 與否)에 따라 即 祖母의 孫子女에 對한 一般的 養育態度에 따른 큰 差異를 發見할 수 없었고 다만 孫子일 때 祖母가 없는 境遇에 支配性, 忍耐性, 成就欲이 強하다.

따라서 祖母가 孫子女에 미치는 影響은 一般的으로 順從的이고 참을성이 弱하며 目的을 達成해 보자는 意欲을 弱화시켜줄 可能性이 있다. 孫女の 境遇는 支配性和 忍耐性이 孫子에 비해 5% 有意水準에서 差異를 認定할 수 없음은 亦是 性差에 따른 即 元來 女性이 支配性和 忍耐性이 弱한 데서 온 것이라 보겠다. 그러나 亦是 孫女の 境遇도 祖母가 있음으로 目的을 達成해 보려는 意欲을 弱화시킬 可能性이 있다. 이와 反對로 祖母가 있을 境遇에 孫女에게 敵意가 높아진다. 이는 亦是 祖母가 同一家族中 孫子에게 偏愛하고 孫女를 輕視하는 데서 孫女の 敵意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다음으로 祖母가 孫子와 孫女에 對한 態度中 即 支持的 態度 溺愛的 態度가 孫女보다 孫子에 훨씬 甚한 差異를 보여주어 男尊女卑의 思想이 祖母가 孫子女에 對한 態度에 強하게 反映되고 있다. 그러나 禁止的 態度에는 差異를 認定할 수 없다.

끝으로 祖母를 가진 孫子女의 Personality 特性和 不安感과의 關係는 獨立性, 協力性 成就欲과 높은 相關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即 祖母를 가진 孫子女의 不安感이 強할 때에는 獨立性 協力性 成就欲이 弱해 진다는 傾向을 發見하였다. 그러나 祖母가 없는 아이와의 差異를 살펴보기 못하였다. 이는 다음의 課題로 갖고 싶다.

參 考 文 獻

- 鄭範謨 教育. 心理統計的方法 豐國學院, 1955.
 洪麟源 問題解決의 心理學事典 東亞出版社, 1964.
 Boring, Lanfeld, Weld. Foundations of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2.
 Berkowitz, L. Aggrassion. New York: McGraw-Hill, 1962.
 Faegre, M.L. Your Children from 6 to 12,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Bureau Publication No. 324, 1946.
 Hurlock, E.B.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 Hill, 1956.
 Hutt, Gibby. The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Boston: Allyn and Bacon, 1956.
 Mussen, P.H.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4.
 Siegel, S. Nonparametric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 New York: McGrawHill, 1956.
 Stagner, R. Psychlog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 Hill, 1961.
 Chorost, S.B.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s and Correlates in Adolescent, Gen. Psychol. Monogr., 1962, 66, 49-90.
 Slater, P.E. Parental Behavior and the Personality of the Child. J. Gen. Psychol., 1962, 101, 53-68.
 Sweney, A.B. Personality Measurement in Children, Utilizng Emotionally-Loaded words. J. Gen. Psychol., 1962, 100, 137-141.
 Zunich, M.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J. Gen. psychol., 1962, 100, 155-165.
 依田新澤田慶輔: 兒童心理學 東京大學出版社 1961.
 牛島義友: 家族關係の 心理 金子書房 1955.
 辻正三: 獨子の 心理 金子書房 1955.

祖母가 孫子女의 Personality 에 미치는 영향

- 辻正三：親子關係と子息の 人格形成 兒童發達 國土社 1957.
岩原信九郎：推計學による 新教育統計法 日本文化科學社 1951.
阪本外三名：人間關係の診斷 牧書店 1962.
辻正三：問題の 祖父母 兒童心理 第17卷 第7號, 85-90.

A Study of Influence of Grandmother on
the Child's Personality Development

Sang Loh, Lee
Mi Kyung, Par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was made of influence of grandmother on the child's porsonality development.

Behavior of randomly sampled 144 kindergarten children aged 5-6: 36 boys and 36 girls who were living with grandmother in the home and 36 boys and 36 girls who came from general households were comparatively observed and rated by kindergartners who were able to correctly identify the children. Addition to thi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ir grandmothers by the auther. Rating scale used for behavior observations was consisted of 8 traits of personality: independency, dominance, co-operativeness, toleranc, responsibility, needs of achievement, agressiveness, and hostility. The scale for interviews was consisted of 3 domains of grandmothers attitude toward grandchildren; support, over control, and submissiveness. Both scales were carefully constructed and the validity of them were tested.

The following results and conclusions were emerged from the study.

1. A moderate and statistically sig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the presence of grandmother and decline of dominance, tolerance, and needs of achievement of the boy and needs of achievement of the girl. Hostility of the girl increased by the presence of grandmother.
2. It was showed that most grandmothers inclined to support and submit to grandsons.
3. High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tained between anxiety of grandchildren and independency, cooperativeness, and needs of achievement of them.

中央美術表具社

李 寅 吉

Tel (73) 6771

서울特別市鍾路區寬勳洞192의13

가 정 회 회 지

아동 행동 관찰 평정표

《지시》

- 이 표는 선생님이 아동을 알게 되면서 부터 관찰된 행동 특색을 같은 연령의 다른 아동을 즉 같은 연령 중에서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비교하여 평정하는 것입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항에 아동의 행동이 거의 일치될 때는 평정난의 “그렇다”에, 조금도 일치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에, 조금 일치되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보통이다”의 밑 () 속에 ○표를 쳐 주십시오.
- 이 조사의 결과는 학문연구의 자료로 삼고져 하오니 조금도 허식없이 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 이 결과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년 개월)	조모의 동거	여부
유치원명 ()	()	아버지의 동거	여부
관찰자명 ()	()	어머니의 동거	여부
기록일자 ()	()	산순(産順) (단 생존자중)	째)

- | 항 목 | 평 정 | | |
|---|-----|------|-------|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 1. 자기가 해야할 일은 언제나 자기 힘으로 할려고 노력한다.....() () () | | | |
| 2. 무슨 일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해 볼려고 애쓴다.....() () () | | | |
| 3. 잘못하여 넘어졌을 때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언제나 빨리
제힘으로 일어난다.() () () | | | |
| 4. 어려움을 당했을 때 쉽사리 남의 도움을 청한다.....() () () | | | |
| 5. 유치원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어머니나 할머니가 기다려주기를
바란다.() () () | | | |
| 6. 항상 선생님 곁에 따라 다니며 선생님을 떠나서 노는 일이 적다....() () () | | | |
| 7. 여럿이 모여놀 때 항상 대장이 된다.....() () () | | | |
| 8. 제할일이라도 항상 동무에게 시키고 동무가 하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 공격한다.....() () () | | | |
| 9. 동무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를 좋아한다.....() () () | | | |
| 10. 항상 자기보다 큰 아이들과 놀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 () | | | |
| 11. 길을 건너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남의 앞장을 서기보다 뒤 따
르기를 좋아한다.() () () | | | |
| 12. 무슨 일이던지 타이르면 쉽게 누그러진다.() () () | | | |
| 13. 동무들의 딱한 사정을 보면 잘 도와 준다.() () () | | | |
| 14. 혼자 놀기보다는 동무들과 모여서 놀기를 좋아한다.....() () () | | | |
| 15. 남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자기가 잘 챙겨준다.() () () | | | |
| 16. 남과 잘 싸우며 어울려 놀기를 좋아 하지 않는다.() () () | | | |
| 17. 자기 물건을 줌체로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 () | | | |

祖母가 孫子女의 Personality 에 미치는 영향

18. 주로 같이 노는 친한 동무가 적다.() () ()
19. 어려운 일이라도 잘 참아가며 견뎌낸다.() () ()
20. 웬만큼 아파도 일찍 집에 갈려고 하지 않는다.() () ()
21. 놀이나 공부시간에는 끝까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다.() () ()
22. 걸핏하면 잘 운다.() () ()
23. 아픔을 잘 참지 못한다.() () ()
24. 웃음을 참지 못한다.() () ()
25. 자기가 받은 일은 언제나 끝까지 자기가 한다.() () ()
26. 준비해야 할 물건은 언제나 잊지않고 준비해 온다.() () ()
27. 남의 물건을 빌려 쓰면 제때에 꼭 돌려준다.() () ()
28. 시킨 일을 끝까지 해 볼려고 노력하는 일이 드물다.() () ()
29. 일리든 말을 잘 잊어버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께 잘 전하지 않는다.() () ()
30. 남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부서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 () ()
31. 무슨 일이든 해 보려는 의욕이 강하다.() () ()
32. 시작한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몹씨 안타까워 한다.() () ()
33. 꼭 남에게 이겨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만 만족한다.() () ()
34. 매사에 노력하는 의욕이 약하다.() () ()
35. 주의가 산만하고 애살이 없다.() () ()
36. 하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 ()
37. 자기를 레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 ()
38. 꾸중을 들으면 잘 반항한다.() () ()
39. 싸우기를 좋아하며 주로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 () ()
40. 남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면 울어버린다.() () ()
41. 무슨 일이나 변명을 많이 한다.() () ()
42. 누가 시비를 걸면 슬그머니 물러난다.() () ()
43. 남을 잘 해친다.() () ()
44. 물건을 잘 파괴한다.() () ()
45. 남이 실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 ()
46. 친구가 꾸중을 들을 때 변명해 주기를 좋아한다.() () ()
47. 동무들이 싸움을 하면 잘 말려준다.() () ()
48. 동정심이 많다.() () ()
49. 실내에서 안절부절 하거나 자리를 잘 뜬다.() () ()
50. 잘 놀라며 초조해 한다.() () ()
51. 손톱을 깨물거나 몸을 움추릴 때가 많다.() () ()
52. 무슨 일에도 마음을 푸근히 갖고 열심히 한다.() () ()
53. 쓸데 없는데 마음을 쓰거나 수선을 떨지 않는다.() () ()
54. 무슨 일에도 순서있게 차근차근 해 나간다.() () ()

아동 행동 관찰 평정표

◀지시▶

- 이 표는 선생님이 아동을 알게 되면서 부터 관찰된 행동 특색을 같은 연령의 다른 아동을 즉, 같은 연령중에서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비교하여 평정하는 것입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항에 아동의 행동이 거의 일치될 때는 평정난의 "그렇다"에, 조금도 일치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에, 조금 일치되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보통이다"의 밑 () 속에 ○표를 쳐 주십시오.
- 이 조사의 결과는 학문연구의 자료로 삼고져 하오니 조금도 허식없이 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 이 결과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년 개월) 조도의 동거 여부
 유치원명 () 아버지의 동거 여부
 관찰자명 () 어머니의 동거 여부
 기록일자 () 산순(産順) (단 생존자중) 제

	평 정		
항 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1. 자기가 해야할 일은 언제나 자기힘으로 할려고 노력한다.....() () ()			
2. 무슨 일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해 불려고 애 쓴다.....() () ()			
3. 잘못하여 넘어졌을 때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언제나 빨리 제힘으로 일어난다.() () ()			
4. 어려움을 당했을 때 쉽사리 남의 도움을 청한다.....() () ()			
5. 유치원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어머니나 할머니가 기다려 주기 를 바란다.() () ()			
6. 항상 선생님 곁에 따라 다니며 선생님을 떠나서 노는 일이 적다. ... () () ()			
7. 여럿이 모여놀때 항상 대장이 된다.....() () ()			
8. 재 할일이라도 항상 동무에게 시키고 동무가 하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 공격한다.() () ()			
9. 동무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기를 좋아한다.....() () ()			
10. 항상 자기보다 큰 아이들과 놀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 ()			
11. 길을 걷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남의 앞장을 서기보다 뒤따르 기를 좋아한다.() () ()			
12. 무슨 일이던지 타이르면 쉽게 누그러 진다.....() () ()			
13. 동무들의 딱한 사정을 보면 잘 도와 준다.....() () ()			
14. 혼자 놀기보다는 동무들과 모여서 놀기를 좋아한다.....() () ()			
15. 남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자기가 잘 챙겨준다.() () ()			
16. 남과 잘 싸우며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 ()			
17. 자기 물건을 줌체로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 ()			

祖母가 孫子女의 Personality 에 미치는 영향

18. 주로 같이 노는 친한 동무가 적다. () () ()
 19. 어려운 일이라도 잘 참아가며 견뎌낸다. () () ()
 20. 웬만큼 아파도 일찍 집에 갈려고 하지 않는다. () () ()
21. 놀이나 공부시간에는 끝까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다. () () ()
 22. 걸핏하면 잘 운다. () () ()
 23. 아픔을 잘 참지 못한다. () () ()
 24. 웃음을 참지 못한다. () () ()
 25. 자기가 맡은 일은 언제나 끝까지 자기가 한다. () () ()
26. 준비해야 할 물건은 언제나 잊지 않고 준비해 온다. () () ()
 27. 남의 물건을 빌려쓰면 제때에 꼭 돌려준다. () () ()
 28. 시킨 일을 끝까지 해 불려고 노력하는 일이 드물다. () () ()
 29. 일러둔 말을 잘 잊어버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께 잘 전하지 않는다. () () ()
 30. 남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부서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 () ()
31. 무슨 일이든 해 보려는 의욕이 강하다. () () ()
 32. 시작한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몹세 안타까워 한다. () () ()
 33. 꼭 남에게 이겨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만 만족한다. () () ()
 34. 매사에 노력하는 의욕이 약하다. () () ()
 35. 주의가 산만하고 애살이 없다. () () ()
36. 하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 () ()
 37. 자기를 해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 () ()
 38. 꾸중을 들으면 잘 반항한다. () () ()
 39. 싸우기를 좋아하며 주로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 () () ()
 40. 남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면 울어버린다. () () ()
41. 무슨 일이나 변명을 많이 한다. () () ()
 42. 누가 시비를 걸면 슬그머니 물러난다. () () ()
 43. 남을 잘 해친다. () () ()
 44. 물건을 잘 파괴한다. () () ()
 45. 남이 실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46. 친구가 꾸중을 들을 때 변명해 주기를 좋아한다. () () ()
 47. 동무들이 싸움을 하면 잘 말려 준다. () () ()
 48. 동정심이 많다. () () ()
 49. 실내에서 안절부절 하거나 자리를 잘 뜬다. () () ()
 50. 잘 놀라며 초조해 한다. () () ()
51. 손톱을 깨물거나 몸을 움추릴 때가 많다. () () ()
 52. 무슨 일에도 마음을 푸근히 갖고 열심히 한다. () () ()
 53. 쓸데 없는데 마음을 쓰거나 수선을 떨지 않는다. () () ()
 54. 무슨 일에도 순서있게 차근차근 해 나간다. () () ()